

제17장 6·25 직전·중 사역

1950년 3월 동석기 선교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 번째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나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교 보고와 함께 선교비 모금에 있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 ‘미국인 선교사를 파송하여 체계적인 선교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려는데 있었다. 이 두 가지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어느 날 대한민국에 6·25전쟁이 발발(勃發)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다. 6·25전쟁(六二五戰爭)이라는 명칭이 사용하는 자들에 의해, ‘6·25 남북전쟁’, ‘6·25 동란’, ‘6·25 사변’ 등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조선 전쟁’(朝鮮戰爭) 혹은 ‘조국 해방전쟁’(祖國解放戰爭)이라고 사용하고 있기도 하며,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韓國戰爭, Korean War)이라고 사용되고 있다. [『위키백과사전』, ‘6·25전쟁’]

여기서 필자는 표준어인 ‘6·25전쟁’으로 사용할 것이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주) 새벽 4시경 서해안 웅진반도[甕津半島, 황해남도의 남서부, ‘대동만’과 ‘해주만’ 사이에 있는 황해에 돌출한 반도]로부터 동해안(東海岸)에 이르는 38선[三八線, 한반도의 중앙부를 가로지르

고 있는 북위 38도선, 군사분계선] 전역에 걸쳐 북한 ‘인민군[人民軍, People’s Army]’의 불법 남침으로 일어난 한반도의 남북전쟁을 말한다. 당시 북한 인민군은 7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여러 개의 특수 독립연대로 구성된 총병력 111,000명과 1,610문의 각종 포, 그리고 280여 대의 전차 또는 자주포 등으로 무장한 병력이었다. 북한 인민군은 6월 26일(월) 서울을 점령하고, 7월 20일에는 대전을 함락시키고, 낙동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6월 27일(화) UN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를 긴급 소집하고 소련[蘇聯,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준말]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한국과 병을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시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 33대 (1945.4.12.~1953.)] 대통령은 6월 30일(금) 파병을 명령하였다. 이어 7월 7일(금) 미국의 주도로 UN군이 조직되었고 7월 8일(토)에 UN의 깃발이 전쟁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9월 15일(금)에 UN군 총사령관 맥아더[Arthur Douglas MacArthur, 1880.~1964.]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9월 28일(목) 서울을 탈환하였다. 10월에 북으로 진군하여 10월 25일(수) 평양과 원산을 거쳐 11월 25일(토) 압록강과 함흥 북단까지 진격하였다. 그런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11월 26일(주) 서울이 점령되었다가 1951년 3월 15일(목) 재탈환

하였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민족적 아픔을 경험했다. [국가기록원]

이렇게 조국에서 전쟁이 계속되자 귀국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동석기 선교사는 미국에 온 목적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이때 동석기 선교사는 우연히 조지아주(Georgia) 포트 베닝(Fort Benning)의 미국 육군보병학교(United States Army Infantry School)의 건물을 빌려 군인교회를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다. 당시 그는 150여 명의 한국군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28명의 신자를 얻게 되었다. 그 28명의 신자 중 대표적인 인물은 전 오산고등학교[五山高等學校,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사립학교] 교장 출신 전재현[全在鉉, 당시 중위, 소장 예편, 장로] 장군이다. 전제현은 당시 동석기에게 침례를 받은 사실과 그로 인한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육군 중위이던 1952년 나는 미국의 육군보병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때 동석기 목사가 학교 안에, 교회를 세웠다. 나는…. 그 교회에 출석했다. 2개월쯤 지나서 동 목사님이 나를 불렀다. ‘전 중위, 오늘은 나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소’ 목사님은 나를 어느 교

회 예배당으로 데려가더니 그곳에서 침례식을 거행했다. 이 조그마한 사건 하나가 나를 변화시키리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다. 부대를 옮겨 다닐 때마다 군인들은 새로 ‘신상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는 ‘종교란’에 무엇을 쓸까…. 고민하고 있을 때 머릿속에 얼른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침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써넣었다. 며칠 후 ‘기독교 장교회’(基督將校會)에서 연락이 왔다. ‘기독교 장교가 한사람 늘게 돼 반갑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다…. 기독교 장교회 회장을 맡기도 했으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으리라곤 전혀 예상을 못 했다.” [『국민일보』, 1993. 2. 22: 「미션 라이프: 역경의 열매- 전제현(2)」.]



전제현[심진호 on Twitter]

한편 북한지역에서는 양석문 전도자가 북청 지방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돌보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공산정권은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핍박하더니 결국에는 6·25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다. 전쟁 소식을 접한 양석문은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좀처럼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가운데 월남할 준비를 하면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정말 뜻하지 않게 홍남철수작전[興南撤退作戰, Hungnam evacuation]의 혜택을 입게 되어 월남(越南)하게 된다.

홍남철수작전이란, 북한 인민군을 지원하는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이 6·25전쟁에 개입하므로 국군과 UN군의 전세가 불리해졌다. 이때 미군이 함경남도(咸鏡南道) 홍남시(興南市) 홍남항(興南港)에서 선박편으로 ‘군 철수작전’(軍撤退作戰)’과 ‘피난민수송 작전’(避難民輸送作戰)을 동시에 실행했는데, 이 작전을 홍남철수작전이라고 한다. 먼저 1950년 12월 15일(금) 미 해병(United States Marine Corps, USMC) 제1사단의 출항을 시작으로, 17일(일) 국군 수도사단, 21일(목) 미 제7사단, 24일(일) 미 제3사단이 홍남을 떠나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국가기록원]

홍남철수작전은 세계전쟁역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해상철수 작전으로, 국군과 UN군 105,000명의 병력과 17,000대의 차량을 비롯한 장비 대부분과 물자를 옮겼을 뿐만 아니라 91,000명에 이르는 북한 피난민들도 구출하였다. 이때 양석문 전도자는 남한으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동석기 선교사와 이홍식 장로를 찾을 겨를도 없이 점점 온몸이 쇠약해져 갔다. 그래서 그는 자연환경이 좋은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永川)의 시골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병을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병과 싸우면서 자연인이 되어 은둔자(隱遁者) 생활을 상당 기간 오래 계속하게 되었다.



양석문 전도자

한편 월남하여 목회하고 있던 이홍식 전도자는 청량리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 가던 어느 날 ‘양석문 전도자가 월남했다.’라는 소식을 소문으로 듣게 된다. 이때부터 이홍식은 “양석문 전도자를 반드시 찾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각종 신문에 사람 찾는 광고를 내는 등 백방(百方)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이홍식의 애타는 기대와는 달리 양석문에 관한 그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자 그의 마음은 초조(焦燥)해 갔다. 그러던 어느 날(1975.5.) 양석문은 24년간의 투병 생활에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갑자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그리스도신학대학 이지호 학장께서 전체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모이는 채플 시간에 양석문 전도자를 초청하므로 말씀을 강론하던 그를 필자도 만날 수 있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홍식 전도자는 양석문을 다시 만난 기쁨과 함께 사역도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서인지 연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때 Christian Church에서 활동하고 있던 부여 합송교회 설립에 공헌한 김학실 권사가 이홍식 전도자에게 교역자 추천을 의뢰했다. 이홍식은 김학실에게 양석문을 추천하므로 Christian Church에 적을 둔 서울 삼선동에 있었던 교회에서 월남 후

첫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양석문 전도자가 목회하면서부터 동석기 전도자와 이홍식 전도자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行步)를 하였다. 그는 Christian Church와 Church of Christ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집회 초청에 응하며 교제하는 것까지는 문제 삼을 수는 없더라도, Christian Church에 보다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했던 것을 후배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양석문은 Church of Christ에서는 전도자로, Christian Church에서는 목사로 양쪽을 줄다리기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였을까? 왜? Church of Christ와 거리를 둔다는 생각을 후배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행보를 하였을까?

왜냐하면 당시 Church of Christ 주소록을 살펴보면 양석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조카는, “숙부는 Only Church of Christ였다”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는다. 아무튼, 양석문 전도자는 환원 운동에서는 이탈하지는 않았고 Church of Christ와의 교제가 왕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그는 삼선동의 교회를 사임하고 1978년 1월 22일(주일) 주일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므로 운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그런데 운화교회는 Church of Christ 주소록에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1883년에 발표된 Christian Church의 ‘그리스도의 교회 (유·무악기) 주소록’에 “문화교회, 목사 양석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APT 20동 203호”라고 되어있다.

또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후 문화교회는 Church of Christ와 Christian Church, 어느 쪽의 주소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였던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양석문 전도자(목사)는 개척한 문화교회 예배당의 위치를 여러 번 이전하였는데, ‘삼청동→ 정동→ 동소문동→ 강남→ 과천’ 등으로 옮겨 다녔다. 그는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었지만, 독학으로 성서 원어를 공부한 실력을 갖춘 전도자답게 능력 있게 말씀을 강론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평생을 혼인하지 않고 봉헌된 독신 전도자로서 청빈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991년 3월 3일(주) 주일 주의 만찬 예배 중에 그를 부르시므로 우리 곁을 떠나 천국으로 떠났다. 그가 떠난 후 남기고 간 유산은 단 몇 권의 책뿐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 2011: 9~11.]

한편 동석기 선교사는 두 번째 미국 방문 목적인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체계적인 선교를 해달라’라고 요청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때 한국에서는 UN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워싱턴 그리스도의 교회(Washington D. C. The 16th and Decatur Church of Christ) 신자들 3명이 대

구 그리스도의 교회(현 대구제일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국 육군소속이었는데, 전쟁의 참화(慘禍) 속에서도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대구교회 신자들의 모습과 상처받은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생활을 목격하고 감동한다.



대구교회(대구제일교회 예배당)

당시 대구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미군 3명 가운데는 집사인 엘레베이(Elebay) 대령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지금 한국에 시급히 필요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한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

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다. 지금 한국에 시급히 필요한 일은,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어 그는 자신의 모교회인 워싱턴교회 장로들에게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이지호, 「초기 한국선교 이야기」; 김세복, 『교회사』, 55.]